

OK법조윤리기출해설

2025년판 1쇄 정오표

(2025년 06월 13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5년 03월 06일 발행된 “ OK법조윤리기출해설
(2025년판) ”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OK법조윤리기출해설(2025년판) 2025년판(2025년) 1쇄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5년 06월 13일 기준)

2025년 03월 06일 발행된 OK법조윤리기출해설(2025년판) 1쇄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
p. 177 - 15회 문 39	<p>[해설 - 수정]</p> <p>④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입,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, 즉 변호사법상 공동법률사무소는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입제한을 받지 않는다(동조 제2항 참조). 그러나 법무법인 등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만 위 수입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. 실제로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(이하 회칙)에서 정한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위 수입제한을 적용하고 있다(최초 출제됨).</p>
p. 180 - 14회 문 16	<p>[문제 보기 - 수정]</p> <div><p>ㄱ.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乙이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서 실제 변론에 참여한 바 없더라도 A를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 X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한 것은 이익충돌회피의무에 위반된다.</p><p>ㄴ.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변론종결시까지 A가 법원에 수임제한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X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.</p><p>ㄷ. 변호사 乙이 보험회사 X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것은 법무법인 L이 해산된 이후이고 심급도 달라졌으므로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이 아니다.</p></div>
	<p>[p.180 14회 문 16 / p.187 12회 문 32 / p.189 11회 문7 / p.198 9회 문15 / p.201 9회 문24 / p.208 7회 문18 / p.214 6회 문15 / p.218 5회 문7 - 설명]</p> <p>최근 대법원에서 동일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수임할 수 있다고 판시함(대법원 2024. 1. 4. 2023다225580). 변호사법 조문과는 달리 법원의 해석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상대방인 당사자로부터 동일 사건을 수임(쌍방대리)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임. 위 8개 문제는 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변호사법 조문에 따라 출제된 것으로서 위 판례를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유의할 것임</p>